

통일문학 어디로 가고 있나

- 통일문학의 현황과 과제 -

양 영 길*

목 차

1. 분단문학에서 통일문학으로
2. 통일문학이란 무엇인가
3. 통일문학의 흐름
4. 문학 문화인 영화의 흐름
5. 통일문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6. 맺음말

1. 분단문학에서 통일문학으로

올해는 남북 분단 60년, 남북 정상회담 5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정도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기도 하다. 이미 통일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가 올해는 그 문학적 물결기의 흐름이 새로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평양과 백두산에서 열렸던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가 그것이다.

민족문학작가회의가 북한의 조선작가동맹과 공동으로 2005년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열었던 이 대회는 문학적 분단을 넘어서 통일문학으로 내딛는 문학사의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 대회에서는 '문학적 통일'을 위한 <6·15 민족문학인협회> 구성, <통일문학>지 발간, <통일문학상> 제정 등을 결의하기

* 문학평론가

도 했다. 남측 대표단장인 고은은 어느 인터뷰¹⁾에서 “두 개의 문학에서 하나의 문학으로 나가는 첫 걸음을 뗐다.”라고 하면서 “장차 통일시대에는 분단시대 문학을 이질화 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문학이 창작된 시대로 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다양성 차원의 접근으로 정체성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문학적으로 ‘통일’은 어디까지 이야기되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작품 분석보다는 주로 서사문학을 중심으로 원론적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은 다른 전달 형식이나 매체보다 민중의 정서를 파고들어 흔드는 진폭이 다르다. 지속적으로 정서의 울림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미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문학이다. 정치나 경제는 민감하게 변화하지만 민중의 정서에 끼친 문학적 힘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 사이에 큰 물줄기가 되어 도도하게 흐를 수 있다. 이러한 정서의 흐름은 학문적으로나 저널리즘으로나 교양적으로 당위성 차원에서 공감하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역사의 전환기를 헤쳐나간 후에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창작되었던 문학작품을 또 다시 찾아 빛을 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민족 분단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많은 작가들에 의해 민족의 분단 문제를 작품 속에 용해시켜 독자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작품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특히 학제적 접근을 시도한 역사는 더욱 오래되지 않아, 그 개념이나 범위가 매우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2. 통일문학이란 무엇인가

‘통일문학’이라는 용어는 그 범위와 개념이 막연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남북 관계의 변화 추이에 따라 새로이 규정되어야 할 과도기적 개념이기도 하다. 또

1) 국민일보 2006. 7. 31.

'통일지향'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했는데, 1988년부터 그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다소 장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더러 있었다.

본래 '통일문학'이라는 말보다 '통일문학사'라는 용어가 먼저 사용되었다. 한국문학사를 서술하면서 남쪽만의 문학사는 반쪽 문학사라고 인식하게 되어 분단 이전의 문학사만이라도 하나의 문학사로 통일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방법론을 논의하면서부터 '통일문학사' 서술 방법 등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금된 문학과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 등 문학사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서 '통일문학'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남북한 문학을 수렴 통합한다는 연구 대상과 범위에 대한 개념은 물론, 창작적인 측면에서 분단 극복을 제재로 통일을 지향하는 문학, 또는 분단 이데올로기의 해체를 바탕으로 남쪽과 북쪽 사람들이 접촉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문학 등으로 서서히 정립되고 있다.

이러한 통일문학에 대한 인식은 1987년 <6·10 시민항쟁> 이후부터 불기 시작한 <북한 바로 알기 운동>과 1988년 북한 문학의 부분 해금, 1989년 3월 남북작가들이 판문점에서의 만남 무산, 그리고 같은 해 문익환, 임수경, 황석영이 잇따른 방북으로 새로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일련의 역사적 사건 이후 통일문학은 민족적 자각으로 인식하여 분단 이데올로기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재일동포 작가의 작품이 번역되어 소개되기 시작했으며²⁾, 억압의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던 북한 소설이 버젓이 국내 출판³⁾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통일문학의 기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직된 이데올로기가 전복되기 시작한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이후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 이전의 문학은 '분단문학'으로 하고 이왕 다시 '분단 고착화 문학'과 '분단 극복 문학'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해방공간의 통일문학이나 독재치하에 필화를 입고 매몰되어버린 통일문학다운 문학작품들도 있지만, 이 작품들은 분단문학사에서 다루면서 통일문학사로 가는 과정인 전사(前史)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재일동포 작가 김석범의 『화산도』 등

3) 『갑오농민전쟁』 등

“분단문학은 전쟁의 비극성과 분단체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중심 내용을 이루었다면, 통일문학은 반세기에 걸친 분단의 역사가 침전시킨 이질성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민족적 화해와 동질성 회복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이 중심”⁴⁾이 된다고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분단문학과 통일문학의 구분은 그 흐름의 선명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통일문학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작업의 하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악(惡)’, 특히 독재정치 등의 실체를 문학 속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바로잡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사는 독재정치에 의해서 왜곡·변질된 것들이 너무도 많다. 그 중에서도 1949년부터는 일제강점기 관료들의 검열도 통과되었던 문학 작품들 가운데 ‘광복’된 나라로부터 추방당해야만 했던 작품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6·25 전쟁을 치르면서 매몰되거나 학살당한 문학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길이 없다. 1946년 2월 전국문학자대회 때 초청된 214명 가운데 자유롭게 언급할 수 있었던 사람이 60명 내외이고 보니,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런데 친일을 주도했던 문학인의 작품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게재하면서 마음껏 가르치고 배우게 만들면서, 항일 투쟁 이념이 강했던 작품들 가운데는 작가가 북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매장시켜 버린 작품도 많이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통일문학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들은 그 동안 정치악에 의한 각종 상징조작에 놀아나는 ‘우매한 군중’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똑똑하고 ‘유연한 군중(smart mobs)’ 시대임을 감안하여 문학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매한 군중시대에 덮여 가려졌던 인식체계를 복원시켜 놓아야 한다. 우매한 군중 시대에는 국가의 권위와 정책에 의해서 사회의 관심을 모아나갔지만, 똑똑한 군중 시대인 현대에는 국가의 권위나 정책만으로는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나가기에 역부족인 시대가 되고 있다. 오히려 냉소적 비판의 목소리만 무성하고, 반대급부적인 부분만 확대 재생산을 거듭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사회 정서의 흐름을 움직여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가능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때문에 통일에 대한 문제도 문학이나 문학 문화인 영화와 TV 드라마 등을 통해서 사회적 정서의 물꼬를 돌려놓은

4) 김재홍·홍용희 편, 『그날이 오늘이라면』(청동거울, 1999), 4쪽.

다음에라야 관심을 모아나갈 수 있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통일문학은 민족적 입장을 고수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넓혀가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이라야 한다. 문학을 통하여 분단으로 말미암은 민족 문제를 한없이 고민해 보게 하는데 통일문학의 의의가 있다. 새터민(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통일 후의 북한 사람들의 적응과 소외를 미리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또 중국 등지에서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탈북자들이 통일 후 재입북을 통한 활동상도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다. 또 통일이라는 거대 현상의 와중에서 권력의 음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조화해 볼 수도 있으며, 경제적 마인드의 재편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통일 전후에 겪게 될 우리 사회의 거대 혼란을 문학을 통해서 체험해 보게 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문학 작품은 없을 것이다.

문학 작품이나 문학적 문화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통일문학은 통일 전후의 거대 혼란을 작품 속에 반영하여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표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작업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학 작품도 창작되어야 한다. 통일문학의 지향점을 현재와 미래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픈 역사에 얽매어 있는 한 분단문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남한과 북한의 문학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중앙 아시아, 미국 등의 해외동포 문학에 이르기까지 미래지향적으로 민족 문제를 걱정하는 문학이 창작되고 발표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아니, 해외동포 문학에서는 이미 통일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3. 통일문학의 흐름

통일문학은 광복 직후 분단 이데올로기가 경직되기 이전인 해방공간에서는 분단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작품들은 전쟁기를 거치고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매몰되는 운명을

맞아야만 했다. 그러다가 반공을 국시로 여기는 정책 속에서는 반공문학이라는 얼굴을 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창녀로서의 예술(art as courtesan)로 타락하여 분단 고착화 문학, 분단 옹호문학이라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역사와 독자를 기만하는 대립이 드세어지는 사이에 민족적 정체성은 초라해져버린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민족 문학적인 역량의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는 민족문학 가치에 대한 모반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학 시대를 거쳐 이를 반성의 토대로 하여 분단 극복 문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단 극복 문학은 1960년 4·19를 계기로 잠시 유연해진 정치 상황에서 최인훈이 발표한 중편 <광장>이 나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독재정치 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북쪽과 이와 연관되는 사건에 대한 따뜻한 시선은 철저히 차단될 수밖에 없었으며, 필화로 이어지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검열에 매몰되어 분단의 아픈 현실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현실을 초월한다고 자위해 왔다.

이러한 억압의 그늘 속에서도 남정현과 현기영은 각각 <분지>(1968)와 <순이 삼촌>(1978)을 발표하였다가 온갖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이청준의 <소문의 벽>(1971), 황석영의 <한씨 연대기>(1972), 윤홍길의 <장마>(1973), 전상국의 <아베의 가족>(1979) 등 전쟁의 유소년 체험 작가의 작품들이 1970년대 문학사의 공백을 그나마 메워주면서 작가적 '양심'을 지켜 주었다.

1980년대에 들어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1980), 현길언의 <귀향>(1982), 송기숙의 <당재>(1983), 홍성원의 <남과 북>(전6권, 1987) 등을 비롯하여 제주 4·3과 같은 지역의 수난사와 관련한 작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이후 통일문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최인훈의 장편 <화두>(1994)가 <낙동강>의 작가 조명희의 흔적을 찾는 '사상 찾기', '사람 찾기'의 여로형 모티프로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하면서 본격적인 통일문학 시대를 열어 주었다. 이어 이호철의 <남녘 사람 북녘 사람>(1996),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199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통일문학으로 가는 길에는 이른바 '좌익 2세' 문인들의 작품과 '빨치산류의 작품'의 영향이 컸다고 할 것이다. 좌익 2세 문인인 이문구, 김원일, 김성동, 이문열 등의 1970~80년대에 걸친 작품 활동과 빨치산류의 작품을 처음 선보인 이태의 『남부군』(1988)과 조정래의 7년에 걸친 『태백산맥』(1983~89)은

통일문학을 향한 물줄기의 큰 지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관촌수필>(1972~77)의 이문구는 전후의 농촌 풍경을 그려나갔으며, 김원일은 <노을>(장편, 1977), <불의 재전>(1983), <겨울 끝짜기>(1986) 등을 통하여 귀향 모티프를 통한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살펴보고 있다. 김성동은 수난사적 인식으로 좌익 아버지의 죽음과 정신적 방황을 묘사한 <풍적>(1983~미완)을 연재했으나 미완에 그치고 말았으며, 이문열은 정치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은 인식의 범주를 다룬 장편 <영웅시대>와 대하 소설 <변경>(전 12권 1998 완간), 그리고 <아우와의 만남>(1994)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통일문학의 중심에는 전쟁 미체험 세대이자 1970~80년대 운동권에서 활약하다가 도피와 투옥의 시련을 겪은 권운상, 김하기, 그리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직접 또는 간접 체험을 했던 이른바 368세대 작가인 임철우(<아버지의 땅>), 최윤(<아버지 감시>)이 자리하고 있다. 그 외에 영화감독 이창동(<소지(燒紙)>) 등의 작가와 작품도 있다. 권운상의 빨치산류 작품인 <녹슬은 해방구>가 있고, 또 비전향 장기수의 옥중 생활을 그린 김하기의 중편 <완전한 만남>은 또 다른 금기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홍상화의 <어머니 마음>, 이원규의 <강물은 바람을 타고>, 이순원의 <해산가는 길>, 박덕규의 <노루 사냥>, 정을병의 <남과 북- 그 흘러가는 이야기들>도 있다. 이들 소설들은 이산 가족의 상봉과 아픔을 그리거나, 탈북자들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남·북한 주민의 직접적인 상봉과 이를 통한 비극적인 회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그 배경을 이데올로기로부터 열린 공간에 해당하는 제3국을 설정하고 남·북한 주민이 직접 만나서 동질성과 이질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 새터민(탈북 이주민)들이 남한 생활에서 겪는 이질감과 소외의식을 다룬 작품들은 '남한 속에 북한 사람들의 사회'를 엿보게 해 주고 있다. '이질감, 불화, 소외' 등 남한 사회에서의 현실 적용의 어려움이 잘 드러나 있어 통일 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의 축소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분단의 역사가 침전시킨 이질성의 참모습과 민족적 화해의 지난한 과정을 정확하게 직시하기 위한 문학적 리얼리티의 구현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은 통일시대를 향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중요한 의의"5)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통일문학은 북한에도 있다. 지난 7월에 열린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 때 북한 문인들은 김진명의 장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읽었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북한의 통일문학은 1990년대 들어 분단으로 말미암은 이산의 아픔과 혈육의 정을 그리워하는 소재를 다루면서 탈이념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국통일에 관한” 주제를 다룬 종전의 작품들이 대체로 반미구국투쟁이나 남조선의 지배정권에 대한 예곡과 비방으로 일관되었던 점에 비할 때,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북한문학의 새로운 특성⁶⁾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유훈의 <어머니 오시다>, 리종렬의 <산재비>, 림종상의 <쇠찌르레기> 재일교포 출신 남대현의 <상봉> 등이 그것이다. 이 소설들은 이산가족의 그리움과 상봉을 소재로 하면서 통일에 대한 전체주의적인 열망을 표출해 내고 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으로, 지난 1989년 3월에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던 남북작가들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북측이 단독으로 <통일문학>을 창간하여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지난 봄호까지 모두 65호를 발행한 <통일문학>의 창간은, 편집장 장석남에 따르면 “당시 작가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지면으로나마 만남을 이어나가자는 뜻”으로 창간했다고 한다. “그런 의미를 담아 창간호에는 고은, 신경림, 황석영 씨의 작품을 실었다”고 덧붙였다. 또 64호부터는 남측 소설가 정도상의 장편 <붉은 유채꽃>을 연재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또 “장차 6·15민족문학인협회의 기관지로 탈바꿈되면 남북한의 작가들이 공동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기도 하다.

4. 문학 문화인 영화의 흐름

문학작품보다 문학적 산물인 영화나 TV 드라마가 민중 정서의 창문을 두들기기에는 더 쉽다고 할 수 있다. 민중의 정서에 충격을 가하여 경직된 이데올로기를 유연하게 하는 데에는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가 막대한 힘을 발휘한다.

5) 위의 책, 238쪽.

6) 위의 같음.

2시간 안팎의 짧은 시간의 영화나 50분 내외의 수 회에 걸쳐 방송되는 TV 드라마는 민중의 정서를 흔들어 충격을 표백하는데 그 효과가 크다고 할 것이다.

통일과 관련된 영화들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으나 TV 드라마는 아직은 에피소드의 삽입 정도에 그치고 있다. 통일 관련 영화는 정지영 감독의 <남부군>(1990), 임권택 감독의 <태백산맥>(1994)과 같은 '빨치산류 문학'을 영화화한 것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휴머니즘적 접근을 통해 냉전적 이분법적 인식을 해체하는데 기여해 왔다.

최근 들어 통일 관련 영화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이 두터워지고, 이들의 정서 흐름에 영향을 입은 바 크다고 할 것이다. 이들 영화들은 처음에는 소설을 바탕으로 하다가 이제는 독자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영화화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스크린을 장식하고 있기도 하다.

이혁수 감독의 <알바트로스>(1996)를 필두로 1999년에는 <쉬리>(강제규 감독), <간첩 리철진>(장진 감독), <유령>(민병천 감독), 2000년에는 <공동경비구역, JSA>(박찬욱 감독), 2002년 <취파람 공주>(이정황 감독), 2003년 <동해물과 백두산이>(안진우 감독), <실미도>(강우석 감독), 2004년 <태극기 휘날리며>(강제규 감독), <그녀를 모르면 간첩>(박한준 감독), 2005년 <간 큰 가족>(조명남 감독), <웰컴 투 동막골>(박광현 감독) 등이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분단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데 기여하고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조성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1000만 관객 시대를 열면서 우리나라 영화사를 새로이 쓰게 만든 작품으로 2003년 말에 개봉한 <실미도>나 그 이듬해 2월에 개봉한 <태극기 휘날리며>가 통일 관련 영화임을 엄두에 두고 볼 때, 대중문화 향유층의 정서 흐름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영화들은 대체적으로 독재권력의 그늘에 가려졌던 역사적 사건이나 이와 관련된 상상력을 통한 폭로성 이야기, 그리고 남북의 적대적 감정의 근원을 해체하면서 서로의 정서를 공유하고 화해·협력에 이르는 이야기, 또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들이 서로 만나 이질성을 확인하면서 생기는 거리감과 극복 과정에서 생기는 코믹한 에피소드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드러내면서 서로 인간적인 존재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휴머니즘적

인 내용들을 풀어놓아 관객들의 정서적 울림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북한 영화 <림격정>을 수입하여 국내에 방영하면서 스크린에서도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은 영화인들이 대중문화 향유층에 대한 인식이 열려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또 지난 2001년 9월 통일부에서 시행한 <북한영상자료의 통일교육 활용을 위한 분석>에는 <림격정>과 <홍길동> 등 북한 영화 50을 선정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에 인용하고 있기도 하다.

영화의 흐름이 중요한 것은 문학작품보다 시장원리에 더 충실하다는 데 있다. 시장원리는 영화가 만들어져 관객의 정서를 자극하고 관객의 흐름이 형성 되면 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영화나 한 차원 발전된 내용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순환에 있다. 시장원리가 곧 사회의 정서 흐름의 지도인 셈이다.

5. 통일문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느새 분단 60년 세월을 넘기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삶과 민족문화는 과연 얼마나 될까. 대립과 갈등의 소모전 속에서 문화적 역량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우리 민족 정체성의 손실이기도 하다. 이제 이 절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부터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촉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 남한의 문학과 북한의 문학을 하나의 문학으로 수렴하고 또 다른 차원의 방법론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때에 통일문학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통일문학은 민족통일에 기여하고 통일의 거대 현상의 충격을 표백할 수 있어야 하며, 통일을 창조적으로 이끌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새로이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크게 수렴과 통합의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인식 방법 개발의 문제에서 생각해 보자 한다.

우선 남북한 문학이 서로 수렴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문학사를 위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공통분모를 찾

아 하나의 민족문학으로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기도 하다. 김성수는 <통일문학 비평 논리>에서 북한 문학을 부록처럼 다루기를 거부하고 상호 상승식 통합논리를 모색하고 있다. 그는 “민족 문학과 리얼리즘이라는 대의에 따라 어느 시기에는 북한의 성과를 강조하고 어느 국면에선 남한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가능하면 화학적 통합서술로 남북한문학사”⁷⁾를 인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문학을 위해서는 “분단체제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된 국내외 상황을 진정한 민족적 화해와 통합을 위한 긍정적 요소로 적극 활용하는 통일 지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⁸⁾라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통일문학사의 서술이나 북한 문학에 대한 연구는 상호 선린관계에서 수렴하고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존중해 나가야 진정한 통일문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질성은 서로 다른 국가 체제에서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배타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다양성으로 인식하면서 보다 넓게 바라보면 하나의 언어문화권으로 이해하여 ‘하나의 문화적인 통일체’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는 이질성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민족적 화해와 동질성 회복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이 없이는 민족적 원형질을 이루는 민족문학의 정체성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남북의 문학 작품을 한 자리에 놓고 동질성 확보와 통일문학 또는 민족문학으로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수렴과 통합의 노정에는 터널 시야식 인식 차원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또 다른 인식 방법론 개발이 요구된다. 또 다른 인식 방법론 개발을 위해서는, 통일조국은 ‘새로운 한국(New Korea)’이라는 인식 아래 그 정체성을 찾아 연속성을 읽어내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제기한 수렴과 통합의 문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통일문학은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거나 통일이 된 뒤에도 민족문화적 생명을 지닐 수 있는 문학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문학의 서로 다

7)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책세상, 2001), 7쪽.

8) 김재홍·홍용희 편, 위의 책, 4쪽.

른 중간지대인 점이지대(漸移地帶)와 민족적 원형질의 공통 요소를 찾는 일부 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그 동안의 인식 체계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기존의 글쓰기로부터 탈피하는 또 다른 상상계의 담론을 찾아 '새로운 글쓰기'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글쓰기는 중앙 문단 권력의 규정력을 해체하고 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인식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새로운 글쓰기의 한 인식으로 지역문학이나 여성문학, 청년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 문학의 그늘에 가려져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지역문학에도 민족문학의 정체성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제 새로운 글쓰기 방법 탐색을 위하여 지역문학의 민족문학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여성적 글쓰기와 청년적 열정을 찾아내어야 한다. 이는 그 동안 우리들을 괴롭혀 왔던 어떤 주의들(isms)로부터 이질적인 것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편견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극복하려는 반편견(anti-prejudice)적 인식의 근간이기도 하다.

문학은 “정치 충위와 경제 충위의 기저에 있는 운명의 형식을 탐색하는 작업”⁹⁾이라고도 한다. 또 작가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사람이라고도 한다. 작가들이 정치 경제의 권력을 주도하는 사람들과 다른 방향에서 이 사회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회는 역사를 기만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통일 독일의 과정과 통일 후에 자주 거론되는 '작가적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작가들은 그 동안 금지된 영역을 들추어 부대끼면서 사회적 담론의 허전한 공백을 채워주기도 했다. 그러나 금지된 영역이 허물어진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인식 방법 모색만이 민족문학을 옹골케 일으키는 유일한 길이자 민족 통일의 역사를 창조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일이다.

1990년 8월 31일에 체결된 통일조약의 35조에는 “독일 양국의 서로 다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분단시대의 예술과 문화는 독일 민족의 지속적인 동일성의 토대였다.”¹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서독의 작가들은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상이한 국가제도와 사회구조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문화

9) 김인환, 『통일 시대의 사회와 문학』(유종호 외, 『한국 현대 문학 50년』, 민음사, 1995), 691쪽.

10) 김이성, 『독일의 분단문학과 통일문학』(한국학술정보, 2004), 290쪽에서 재인용.

속에 자리잡고 있는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¹¹⁾을 기울이면서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문학은 우리의 통일문학의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적 전환점에서 작가가 빛나는 이유는 고독한 예견자로서 역동성을 갖고 긴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해서 복류(伏流)하는 민중의 정서를 찾아 정서적 민중의 욕구를 향한 출구를 터 주어야 통일문학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6. 맺음말

1998년 11월 18일부터 바닷길을 통한 북한의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뒤이어 육로와 철도 연결이 이루어지고 개성과 평양 관광도 눈앞에 있다. 얼마 전 평양에서 <아리랑 축전>을 관람하고 온 어느 인사는 '통일시대'를 실감한다고도 했다.

문학적으로는 민예총 속초지부가 1996~1997년에 <통일문학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통일문학상을 공모하여 시상하고 있기도 하다. 또 지난해에는 문예진흥원에서 1999년부터 준비하여 완간한 <통일문학전집> CD에 광복 이후 발표된 남한작가 746명의 작품 4,406편과 북한작가 258명의 작품 976편을 수록하여 북한자료 특수취급인가 도서관, 대학 및 연구소 등 175곳에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문학은 분단 극복 내지 민족통합의 길찾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평화통일이 정착록을 위해서 통일공간의 거대 현상을 미리 찾아가 볼 수 있는 길은, 문학이나 문학적 문화인 영화 등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통일문학에 대하여 그 개념과 출발 과정, 통일문학의 대체적 흐름, 문학 문화인 영화의 흐름, 그리고 전개 방향에 대하여 수렴과 통합의 문제, 또 다른 인식 방법론 개발의 문제에 대하여 원론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11) 위의 책, 7쪽.

끝으로 동독의 몰락과 통일과정을 지켜본 헬가 콰니히스드로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이 해가 지난 뒤에는 시를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해가 지난 뒤에는 사랑도 혁명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봄이 오는 걸 막고 싶습니다. 이 해에 우리 모두 무척이나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지금, 나는 소리 높여 울부짖고 싶습니다. 가면의 유희는 끝나고 말았습니다.¹²⁾

참 고 문 헌

-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 2001.
김이섭, 『독일의 분단문학과 통일문학』, 한국학술정보, 2004.
김재홍·홍용희 편, 『그날이 오늘이라면』, 청동거울, 1999.
김태현, 『통일문학은 어떻게 오는가』(문학사상 263), 1994. 9.
도종환 외, 『분단문학에서 통일문학으로』, 학민사, 1988.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 비평, 1998.
양영길, 『통일열망시대의 4·3문학』(『제주작가』 4집), 2000. 6.
양영길, 『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사상사, 2001.
유한용 외, 『통일문학 지향을 위한 문학사 서술 방법의 이론적 모색』, (현대문학이론연구회편,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집), 1997. 12.
한백민, 『통일문학의 현황과 전망』(원광문화 26), 1989. 12.
황송문, 『분단문학과 통일문학』, 성문각, 1989.

12) 위의 책, 271쪽에서 재인용.